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금산발전 로드맵 완성할 터!



박 동 철 | 금산군수

1952년 충남 금산 출생
2012년 중부대학교 행정학 박사
2004년 금산군 부군수
2006년 민선 4기 금산군수
2010년 민선 5기 금산군수
2014년 민선 6기 금산군수
2014년 민선 5기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을
평가 공약대상(법률소비자연맹)

▲ 군수로 당선된 소감?

민선 4·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저를 믿고 금산의 미래를 맡겨주신 군민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년은 군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로 원칙있는 군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올 수 있었다. 다시금 저를 선택해주신 것은 그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금산발전의 로드맵을 완성하라는 군민여러분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운동 기간동안 내건 청렴한 리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행정인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금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올바르게 키우겠다.

현안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와 금산발전의 토대를 완성시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엄중히 지키겠다.

반목과 불신, 오해로 얼룩졌던 상처를 도려내고 군민 모두 손을 맞잡는 화합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소통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군민 모두가 균등하고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의 믿

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4년간 큰 결실로 보답하겠다.

▲ 현재 금산군의 주요 현안과제를 꼽으라면?

금산군의 주요 현안과제로는 우선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준비다. 인삼중주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삼산업의 재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웰빙·건강도시로서의 금산브랜드 제고를 위해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산인삼축제와 엑스포 등 국제적 행사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광장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삼류 제조·유통업계에 대한 이중규제로 인삼산업계의 반발 등 논란이 되어왔던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부처 합의안(수정안)이 국회 처리될 수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신도청과 충남의 동남부 극단에 위치한 금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구축(금산~논산 연결 고속화도로)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다. 금산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금강 광역권의 향토산업과 문화관광자원의 시너지 효과제고를 위해서 서남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 제3차 충남도 종합계획에 반영되었고 국토교통부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타당성조사용역 추진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청이전에 따른 충남도민으로서의 소외감 확대로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관련 군민 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구역변경에 의견을 달리하는 민간단체와 협의 및 군민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군민 화합책을 모색하겠다.

▲ 역점사업 및 공약?

앞으로 4년은 금산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난 8년 동안 준비하고 지속 추진해 왔던 현안들을 마무리하거나 금산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 ▶금산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구축, ▶인삼·약초산업의 세계·명품화 ▶생활편의 시설 개선 및 개발, ▶농업의 6차 산업화 실현, ▶거점 종합개발로 균형발전을 유도, ▶건강한 문화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 교육지원 확대, ▶지역경제 기반 조성, 군민의 뜻에 따르는 행정구역 변경 논의 등 실현가능성이 높고 지역여건에 맞는 공약을 선정하였다.

금산 발전과 미래를 여는 성장동력 기반 구축을 위해 제2기 균형발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내륙첨단산업권발전 종합계획, 신발전지역 지구사업, 휴양형 전통의료단지 조성 등을 통해 금산의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내 금산 발전을 가속화시키겠다.

금산의 가장 큰 핵심동력인 인삼·약초의 세계화와 명품화를 통해 해외수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금산·추부 깎아시절 현대화 및 생산·유통 지원, 품목별연구회 집중 육성 등

● 특집10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금산농업의 6차 산업화에 새 지평을 열겠다.

상·하수도 보급, 도시가스 공급률 확대, 주택개량 등 주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종합체육관 건립, 실내테니스장 조성, 전 읍면 체육센터 조성 등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기회와 체력 증진 공간을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 거점형 종합개발 균형발전 유도과 소외없는 금산형 복지 실현,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은 금산인삼의 세계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다. 그동안 금산군은 금산 인삼·약초의 명품화·세계화에 주력하여 전 세계 9개국 45개소에 해외 금홍매장을 개설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인삼종주지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 속 금산인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 개최, 해외 금산인삼 명품관 확대(60개소)에 노력하는 한편 내수축진을 위해서 대도시 특별전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고,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의 완공 및 내실운영으로 금산인삼약초의 세계화·명품화에 앞장서겠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금산의 수려한 청정자연, 특색있는 향토문화와 인삼·약초로 대표되는 힐링·건강도시 이미지의 조화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활기차고 쾌적한 전원도시 육성이 요구된다.

정주기반도시, 산업융성도시, 복지안정도시, 문화생태도시, 자치경영도시 등 쾌적한 전원도시 육성을 위한 5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 깨끗한 지속가능 환경창출과 재난예방체계 구축, 편리한 교통망과 교통기반 확충을 통해 편리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의 최고의 인삼·약초 물류기반을 기반으로 세계 인삼·약초산업클러스터 구축, 도농상생의 금산농업 실현, 지역순환형 경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산업융성도시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전통의료관광과 힐링여행 명소, 생태환경보전과 경제적 가치제고를 통해 문화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주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전 군민의 생애별 역량개발이 가능한 교육도시로의 금산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4년은 금산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난 8년 동안 준비하고 지속해왔던 금산발전의 현안들이 마무리되고 금산발전의 로드맵이 완성되는 시기다.

항상 낮은 자세로 민생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까지 귀담아 들으며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지역발전 가속화에 앞장서며 군민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금산발전의 토대를 완성하겠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은 앞으로 민선 6기 군정을 이끌어 가는 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금산군민 여러분의 선택에 감사드리며 발전하는 금산을 만들기 위해 원칙있고 깨끗한 행정으로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수가 되겠다.

